

제목 한.캐나다 FTA협상 공식 출범

게시일 2005-07-15

문의(자유무역협정 지역교섭과) : 2100-8122 발표일시 : 2005.7.15(금) 11:00

제목 : 한.캐나다 FTA협상 공식 출범

1. 우리나라의 6번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파트너로 캐나다가 확정되었다.

※ 타결·발효된 협상 : 칠레('04.4 발효), 싱가포르('05.4 가서명), EFTA('05.7월 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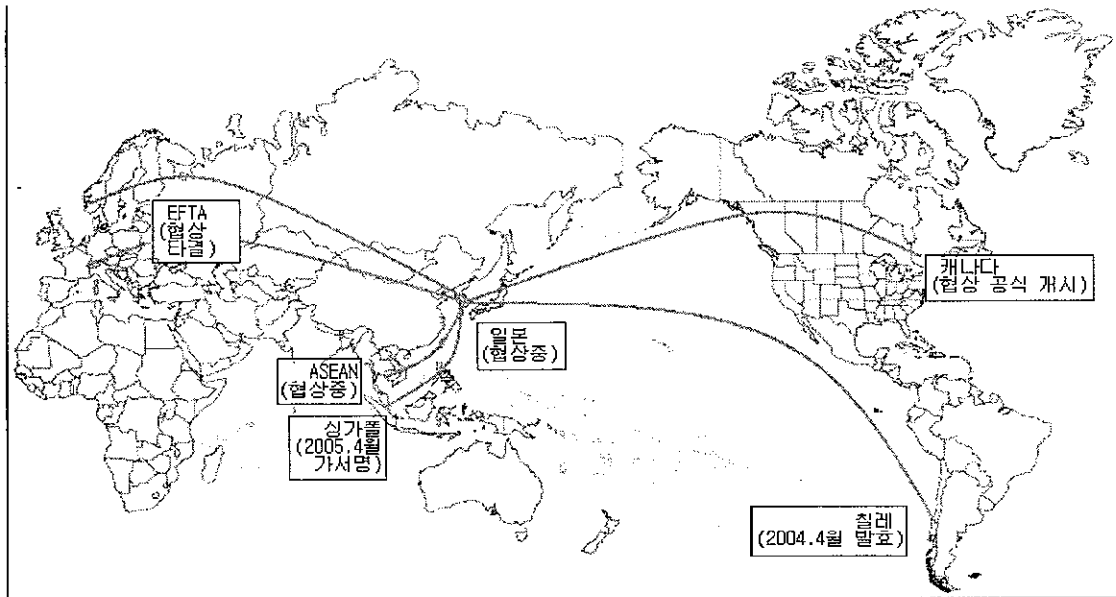
※ 현재 진행중인 협상 : ASEAN('05.2 협상개시), 일본 ('03.12 협상개시),

2.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WTO 소규모 각료회의(중국 대련, 7.12~13) 계기에 James Peterson 캐나다 통상장관과 한.캐나다 통상장관회담(7.11)을 개최하고 양국간 교역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한.캐나다 FTA협상을 공식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오늘 밝혔다.

※ 한.캐나다 양국은 WTO 미니 각료회의 종료 후 양국 수도에서 발표할 것에 합의

3. 캐나다와 FTA협상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FTA를 통해 아시아(싱가폴.ASEAN.일본), 유럽(EFTA), 중남미(칠레)에 이어 북미지역에 거점국가를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전략”을 통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FTA 허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 동시다발적 FTA 추진현황 》



※ 기타 : 미국(사전점검협의 완료), 멕시코.인도.Mercosur(공동연구), 중국(민간)

4. 양국 통상장관들이 양국간 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공식 합의함에 따라 향후 한.캐나다 양국은 GATT 24조 및 GATS 5조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모든 교역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를 추진하게 되며, 제1차 협상은 7.25일 주간(週間)에 서울에서 개최된다.

※ 한.캐나다 FTA의 포괄범위 : 상품(공산품, 농축수산물), 서비스(금융, 통신, 건설, 유통, 관광 등), 투자, 정부조달, 지적권, 경쟁 등 교역관련 모든 분야

※ 구체적인 협상일자는 실무자간 협의를 통해 다음주에 확정될 예정

5. 한.캐나다 FTA 협상 추진이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

가. 한.캐나다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산업.교역구조를 갖추고 있는 바, 적은 규모의 국내산업 조정 비용으로 양국간 교역 확대의 기회 마련

o 우리나라는 자동차.철강 등 공산품을 주로 수출하는 반면에 캐나다는 제지원료, 석탄, 니켈 등 기초 원자재를 수출하는 고전적인 상호 보완적인 교역관계이므로 큰 피해 없이 교역 확대

도모 가능

-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연구에 의하면 한.캐나다 FTA 체결로 양국의 모든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철폐될 경우 양국간 교역수준이 현행 55억불 수준에서 중·장기적으로 1.8 배 수준인 100억불까지 증가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對캐나다 수출은 22.8억불 가량 증대)

* 상기 예상대로 對캐나다 수출이 증가할 경우 “수출의 취업유발효과” 고려시 중·장기적으로는 38,000여명의 취업유발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잠정 예상됨

(2004년 기준, 무역협회 “수출의 취업유발효과” 참조)

나. G8 국가와의 FTA 협상 추진에 따른 대외신인도 제고 및 외자유치 가속화의 계기 마련

내용

- G8 국가인 캐나다와의 FTA협상 추진으로 개혁·개방에 대한 우리의 의지 및 선진통상국가 구축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외신인도 제고에 따른 외자유치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다. 북미시장으로의 안정적 진출 기반 마련 및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출범에 대비한 교두보 확보

- 세계 GDP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북미시장의 양대 축인 캐나다와의 협상으로 NAFTA 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 아울러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출범에 대비하여 북미지역 교두보를 마련하는 전략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계기 마련

- FTA를 통한 제한적, 양자적 개방을 통해 우리 서비스 산업의 적응력 및 경쟁력 제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DDA차원의 다자적인 개방에 대비케 하는 한편,
- 전문직 분야에 대한 자격상호인정(MRA) 추진시 우리나라 전문직 분야 종사자들의 캐나다 진출 기회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6. 한편, 외교통상부는 한.캐나다 FTA협상이 본격 출범함에 따라 통상교섭본부 FTA국을 중심으로 재경.산자.농림.복지부 등 20여 관계부처 담당자들로 구성된 협상단을 구성하고,

- 한.캐나다 FTA예비협의를(2005.1월 및 3월 개최) 결과, 공청회 및 FTA민간자문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수렴된 각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적의 협상안을 마련하여 협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첨부 :1. 한.캐나다 FTA 추진 경과

- 2. 한.캐나다 교역 및 투자 현황
- 3. 한.캐나다 FTA 예비협약의 결과
- 4. 한.캐나다 FTA 공청회 결과
- 5. 캐나다 개황

/끝/

한 · 캐나다 FTA 추진 경과

- 2004.5.10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캐나다와의 FTA 체결을 단기 과제로 추진키로 결정하고 우선 캐나다측과 FTA 공동연구(Joint Study)를 추진하기로 결정

※ 캐나다와의 FTA는 우리의 경쟁력 있는 제조업과 캐나다의 풍부한 천연 자원 및 우수한 첨단기술 등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활용하여 상호 실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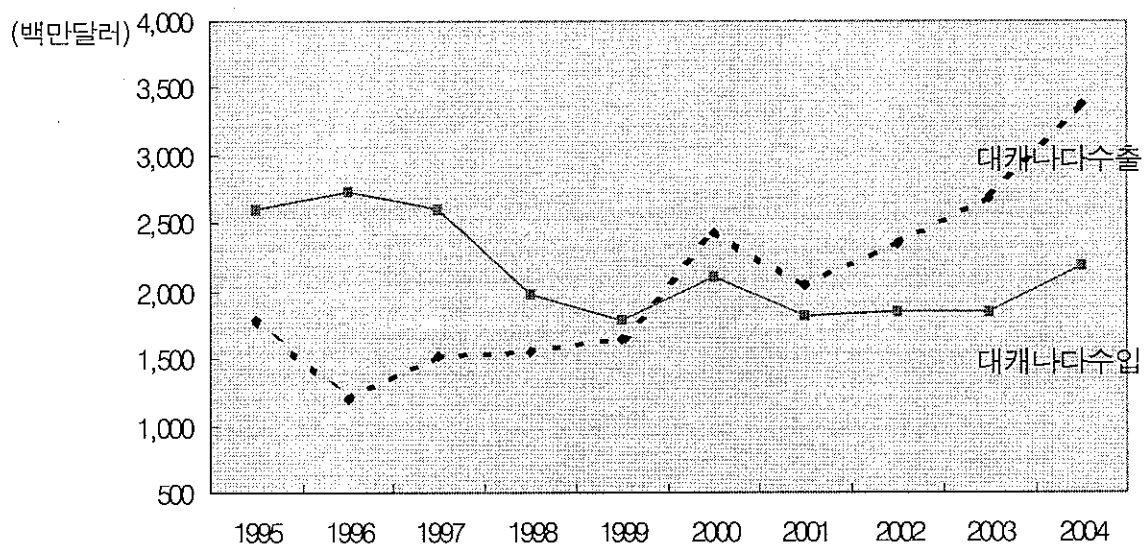
- 캐나다 정부 주요 인사 면담시 상기 우리 입장 수시 전달
 - 2004.4~7월 통상교섭조정관의 캐나다 통상부 차관 및 외교부 차관보 등 접촉시 양국이 조속히 한·캐나다 FTA 공동연구 추진에 합의할 것을 제안
- 2004. 11월 APEC 회의 계기 한·캐나다 정상회담 및 통상장관 회담시 양국간 FTA 추진타당성에 대한 정부 당국간 예비협의(FTA exploratory discussions)를 개최기로 합의
- 2005. 1월 및 3월 한 · 캐나다 FTA 예비협의 개최 (2차례)
 - 양국의 FTA 추진정책, FTA의 대상범위 및 포함할 내용, FTA 추진시 양국의 관심 · 민감 분야 등에 대해 논의
- 2005. 5.6 한 · 캐나다 FTA 공청회 개최
 - 한 · 캐나다 FTA 추진에 관한 업계 · 학계 및 일반 국민들의 의견 수렴
- 2005. 5.10 FTA 민간자문회의 개최
 - 한 · 캐나다 FTA 추진 관련 자문위원들의 의견 수렴
- 2005. 5.23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 한 · 캐나다 FTA협상 추진 승인
- 2005. 6. 1 한 · 캐나다 통상장관간 전화회담 개최
 - 한 · 캐나다 FTA협상 출범에 원칙적으로 합의

한·캐나다 교역 및 투자 현황

<표 1> 한·캐나다 교역규모 (1995 ~ 2004년)

	수출(만 \$)	증가율(%)	수입(만 \$)	증가율(%)	수지 (만 \$)
1995년	179,042	28.8	260,432	29.9	-81,389
1996년	120,334	-32.8	272,360	4.6	-152,026
1997년	151,428	25.8	260,422	-4.4	-108,993
1998년	155,120	2.4	197,515	-24.2	-42,394
1999년	163,847	5.6	179,294	-9.2	-15,446
2000년	242,673	48.1	210,778	17.6	31,894
2001년	203,572	-16.1	182,133	-13.6	21,439
2002년	234,063	15.0	184,554	1.3	49,508
2003년	268,212	14.6	186,018	0.8	82,194
2004년	338,307	26.1	218,880	17.7	119,426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참고 : 캐나다는 우리나라의 제15위 수출시장이며, 제23위 수입시장이며,
우리나라는 캐나다의 제8위 수출시장이며, 제7위 수입국임

<표 2> 한·캐나다 품목별 교역구조

< 對캐나다 주요 수출 품목(2004년) >

품목명 (MTI 3단위)	금액(천달러)	증가율(%)	비중(%)
자동차	1,298,763	18.2	38.4
무선통신기기	321,913	98.8	9.5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134,019	19,245.60	4.0
고무제품	92,724	15.5	2.7
컴퓨터	91,183	-31.8	2.7
의류	85,836	-22.9	2.5
철강판	82,319	50.3	2.4
자동차부품	78,682	29.8	2.3
영상기기	69,844	12	2.1
철강관및철강선	63,677	30.7	1.9
총계	3,383,074	26.1	100.0

< 對캐나다 주요 수입 품목(2004년) >

품목명 (MTI 3단위)	금액(천달러)	증가율(%)	비중(%)
제지원료	397,721	11.5	18.2
석탄	275,342	58.6	12.6
니켈제품	136,606	91.9	6.2
석유화학합성원료	106,975	2.7	4.9
알루미늄	105,218	-22.3	4.8
목재류	91,588	1	4.2
유선통신기기	77,201	-19.9	3.5
동광	72,513	247.7	3.3
우라늄	69,053	142	3.2
총계	2,188,806	17.7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KOTIS)

<표 3> 한·캐나다 양국간 투자 추이

(단위 : 건, 백만달러, 신고수리기준)

	2000		2001		2002		2003		2004		누 계 (1968~2004)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對韓 투자	54	520	26	1,506	32	261	36	73	44	224	342	3,217
對캐나다 투자	35	41	31	80	23	10	24	36	35	42	256	2,050

자료: 산업자원부, 한국수출입은행

한 · 캐나다 FTA 예비협 의 결과

가. 전반적인 결과

- ☐ 그간 양국이 체결한 여러 FTA를 상호 검토하면서, 양측이 상품 · 서비스 · 투자 · 지식재산권 · 정부조달 등 교역의 모든 분야가 망라된 포괄적인 FTA를 추진하고 있는 등, 매우 유사한 FTA 정책방향을 견지하고 있음을 상호 확인
- ☐ 특히, 양국의 상호 보완적인 교역구조와 협력의 잠재성을 감안할 때, 한 · 캐나다 FTA가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 수단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함.
- 특히, 한국으로서는 북미시장(NAFTA) 진출과, 캐나다로서는 동북아 진출이라는 전략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데 공감
- ☐ 이러한 공통된 인식하에 한 · 캐나다 FTA가 추진될 경우 “실질적인 모든 교역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를 지향해야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견해를 같이함.

나. 분야별 협의결과

- ☐ 상품 분야
 - 공산품의 경우 예외 없는 관세 철폐를 원칙으로 하는 한편, 농산물의 경우 가급적 폭넓게 관세 철폐를 추진하되, 상호 민감 분야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에 원칙적으로 견해를 같이함.
 - 반면, 수산물의 경우 캐나다측이 공산품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을 제의한 반면, 우리는 우리 수산업계의 영세성 등을 고려할 때 농산물에 준하여 민감성이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함.

□ 서비스·투자 분야

- 서비스 교역의 촉진에 따른 혜택으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효율성 극대화가 도모될 수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포괄적이며 실질적으로 모든 서비스가 논의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함.
- 또한, 양국간 투자활성화를 위해 보다 많은 투자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투자자의 권리를 강화한 투자 문안을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견해를 같이함.

□ 기타 분야

- 양측은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향적인 일시입국(temporary entry) 문안의 작성 필요성을 검토기로 상호 양해하고, 정부조달 분야의 경우 시장접근 확대 및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기로 함.
- 또한, 지재권 및 경쟁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양국간 협력 강화방안을 상호 모색기로 하는 한편, 노동 및 환경 분야의 경우 별도의 협력 협정 체결 필요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기로 함.

한·캐나다 FTA 공청회 결과

□ 개요

- 일시·장소 : 2005. 5.6(금) 14:00~18:15, 무역협회 대회의실
- 참석자 : 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 14명 외에 업계, 학계, 언론계, 일반 참석자 등 약 100여명 참석

□ 주요 논의 내용

-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FTA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상 추진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개진
 - 한·캐나다 양국간 산업구조의 상호 보완성을 고려할 때 비교적 적은 규모의 국내산업 조정비용으로 양국간 교역확대 및 후생수준 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
 - 특히, G7국가와의 FTA체결에 따른 대외신인도 제고로 외자유치가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미주자유무역지역(FTAA) 출범에 대비한 교두보 확보 측면에서도 유용할 것이라는 견해도 개진됨.

(1) 한·캐나다 FTA 체결시의 경제적 효과 (KIEP 이준규 미주팀장)

- 양국간 FTA의 체결시 전통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양국간 교역이 증진되는 한편, 잠재력에 비해 저조한 수준인 양국 산업내 무역(intra-industry trade) 및 투자협력이 제고되어 한·캐나다 양국 국민의 후생수준이 증진될 것으로 전망

< 한·캐나다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단위 : %, 억불)

	후생		국내총생산		총 수출		對상대국 수출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한국	0.38	15.0	0.40	24.0	0.88	22.0	67.4	22.8억
캐나다	0.29	16.3	0.48	41.0	0.53	16.0	102.9	22.5억

* 출처 : KIEP, "한·캐나다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분석"

(2) 제조업에 대한 영향 (무역협회 정재화 FTA팀장)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타이어, 선박, 영상기기 등에 대한 캐나다의 관세율이 5~7%선을 유지하고 있어 양국간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이들 분야의 수출 증가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
- 반면, 캐나다産 의약품·화장품 등 정밀화학 제품 일부, 석유화학 제품 일부, 항공기 및 전기전자·기계류(통신기기 부품, 발전기 등) 일부 등의 수입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

(3) 농업에 대한 영향 (서울대 농업생명과학연구원 김한호 교수)

- 축산 및 낙농 분야**를 중심으로 650~1,100억원의 국내 생산 감소가 예상되나, FTA협상을 통해 캐나다 위생 기준에 대한 논의가 추진될 경우, 배·감귤 등 과실류 및 조제식품의 수출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

** 쇠고기, 돼지고기, 치즈 등을 민감 품목으로 분류

(4) 수산업에 대한 영향 (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이상고 교수)

-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되거나 생산량이 적은 바다가재 및 냉동 어류를 중심으로 수입 증가가 예상되며, 추후 수입 물량 증가시 '대체효과'로 인해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붉은 대게, 꽃게, 새우 등)에 대한 영향 일부 가능

캐나다 개황

(일반사항)

- 수 도 : 오타와(Ottawa, 약 100만명)
- 인 구 : 3,251만명('04.7)
- 면 적 : 9,984,670km²(한반도의 약45배)
- 언 어 : 영어(59.3%), 불어(23.2%) 공용
- 종 교 : 카톨릭(46%), 프로테스탄트 (36%)

(정치현황)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입헌군주국)
- 내 각 : 자유당
- 의회구성 : 양원제
 - 상원 : 105석(자유당 58석)
 - 하원 : 308석(자유당 134석)
- 주요인사
 - 국가원수 : 엘리자베스 II세
 - 총독(아드리엔 클락슨)이 권한 대행
 - 총리 : 폴 마틴(Paul Martin) 자유당 당수
 - 외무장관 : 피에르 페티그루(Pierre Pettigrew)
- 최근 정치정세
 - 2003.12월 크레티앙 총리가 임기만료('05.11.) 이전 사임함에 따라 Paul Martin 전 재무장관이 총리로 취임
 - 2004.6.28 실시된 총선에서 집권 자유당이 다수의석(135석)을 확보하면서 4기 연속 집권에 성공하였으나 과반의석(155석) 확보에 실패하여, 소수당 정권 출범
 - 최근 Sponsorship scandal(퀘벡주 후원프로그램관련 자유당 정부의 비리 사건) 비리조사(Gomery 위원회) 여파로 자유당 지지도가 하락한 가운데, 야당 보수당 및 일각에서 조기 총선 가능성 대두
 - 퀘벡주(불어권) 분리·독립문제는 '98.9 연방 대법원의 일방적인 분리·독립 불가 판시에 따라 소강상태이며, 현안으로서의 관심도 저하 추세

(경제현황)

- 1인당 GDP : C\$38,401('03)
- 무역규모 : US\$457억불 흑자('03)
 - 수출 : C\$3,807억/수입 : C\$3,350억
 - ※ 1C\$≒0.76US\$
- GDP 성장율 : 1.7%('03)
- 최근 경제정세
 - 캐나다의 저금리 추세와 최대 교역상대국인 미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 등 유리한 여건으로 인해 안정적 경제성장 시현
 - 2004년에는 3.3% 수준의 성장세 전망

(우리나라와의 관계)

- 외교관계수립 : '63.1.14
- 공관현황 : 대사관 1, 총영사관 3
- 수출입현황 및 주요품목(2004년 기준, 백만미불)
 - 수출 : 3,200(자동차, 통신기기, 컴퓨터 등)
 - 수입 : 2,100(제지원료, 석탄, 알루미늄 등)
- 최근 국빈 방문
 - '95.10 김영삼 대통령 국빈 방카
 - '97.1 Chretien 수상 공식 방한
 - '99.7 김대중 대통령 국빈 방카
- 재캐나다 우리 교민 현황(2002년말) : 약 15만명(일시 체류자 포함)

(북한과의 관계)

- 외교관계 수립 : 2001.2.6
- '88.10이후 외교관 방북 허용